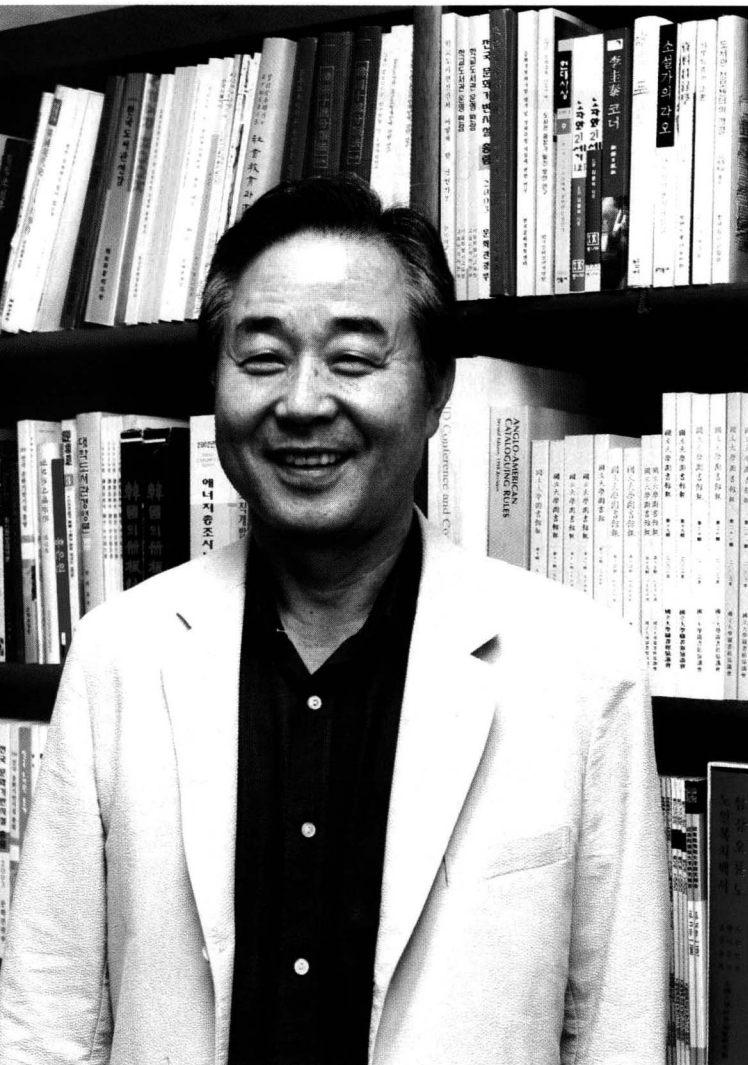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 신임회장

문화 선진국 이끄는 중추적 역할은 출판, 도서관계의 몫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도서관 발전상을 피력했다.

“유래 없이 큰 세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도서관계 내부로 시선을 돌렸을 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태승 회장은 도서관계 내부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 문화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라면서 ‘가야할 길’ 이 남았음을 조심스레 강조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됩니다. 도서관인들을 위해 설립된 협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계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와 위원회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발전적인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때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날카로운 비판자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서관과 출판계의 협조 사업과 관련해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형제 관계’ 라고 표현했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문화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출판과 도서관문화, 예술분야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출판계가 그 선두에 서야겠습니다.”

김태승 회장은 도서관협회가 주력해야 할 부분을 ‘도서관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사서 자질 향상’ 으로 꼽았다. 지역사회에서도 도서관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협회가 도서관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자체 반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학술대회와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서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서는 사명감이 우선시 되는 직업인 만큼 이용객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와 도서관 시스템 신기법 도입 등 시대 흐름에 신속히 적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내부 장애요소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제23대 한국도서관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태승(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회장이 취임 포부를 전했다. 김태승 회장은 지난 5월 11일 한국도서관협회 평의원회 추천과 투표를 통해 선출, 7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수행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 도서관계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점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4월 발효된 개정 도서관법